

청렴으로 이어진 인연

예년과 달리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더위에 시달리고 있을 때,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후배가 아이스크림을 한 아름 사들고 사무실로 찾아왔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더운데 아이스크림 좀 드시고 하세요!”

환하게 웃으며 사무실로 들어오는 후배는 반가웠지만, 산하 기관 평가 기간이라서 작은 호의마저도 부담스러워 선뜻 아이스크림을 받아 들지 못하고 있었다.

후배는 내 책상 뒤 ‘청렴韓 세상’이라는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는지 빙긋 웃었다. 그러고는 “저번에 주신 대리비로 사온 거예요. 그때 걸어가서 돈 굳었잖아요!”라고 얼른 너스레를 떨며 아이스크림이 든 봉지를 안겼다. 그때서야 나도 아이스크림을 받았고,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꺼내 먹으며 마주 앉았다.

사업단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으로 가끔 술잔도 기울이는 사이지만, 평가 기간 중의 방문이라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건’을 경험한 후 서로 믿음을 쌓은 사이였다. 그런 후배이기에 작은 호의마저도 의심한 내가 미안해졌다.

후배는 머쓱해진 내 기분을 느꼈는지 웃으면서 말을 건넸다.

“선배님, 우리 ‘그 사건’ 이후로 우리끼리라도 부탁 같은 건 절대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 후배를 만나면 늘 기억나는 ‘그 사건’이 있었다. 후배와 내가 평생 청렴하게 살자며 서로 굳게 약속했던 그날의 ‘그 사건’.

그 사건

그 사건은 십여 년 전 후배와 함께 사업단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이다.

그때 당시 나는 고속국도를 건설할 용지를 매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후배는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평소와 같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중식을 먹고 사업단 뒷마당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소소한 행복이었다. 그날도 그런 평범한 날 중의 하루였다. 중식 시간이 거의 끝나 갈 무렵 후배가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선배님, 퇴근하고 시간 좀 내 주세요.”

퇴근 후 자주 술자리를 갖던 사이였지만, 그날따라 그 소리가 비장하게 들려서 직감적으로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구나 싶었다.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평소 장

난기 많은 친구가 굳은 얼굴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심각성이 느껴져 더는 묻지 못했다. 우리는 별다른 대화 없이 퇴근 후 단골 술집으로 향했다.

묵묵히 소주를 마시며 후배가 이야기를 꺼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무겁게 입을 열었다.

“얼마 전에 거기 땅 계약하러 온 민원인 말이에요. 그 민원인 땅에 그렇게 나무가 많나요?”

민원인이라는 소리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라는 것을 느낀 나는 묵묵히 소주잔을 기울이며 되물었다.

“그건 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후배가 관심을 가질 사안이 아니었다.

“지난주 선배님이 현장에 나가시고 안 계실 때, 제가 그 민원인 응대를 했어요. 날도 덥고 마침 점심시간이기도 해서 같이 콩국수 한 그릇 했는데…….”

“했는데?”

평소 후배답지 않게 말이 늘어나자 나는 후배를 다그치듯 되물었다.

“제가 잠시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계산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얻어먹으면 안 되니까요. 저녁에 술 한잔하자고 하기에 점심값 값을 생각으로 또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도 어찌나 빠르게 계산을 하던지…….”

결국 점심, 저녁 식사를 다 얻어먹었다는 것이었다. 밥 한 끼, 술 한 잔도 받아 먹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청렴, 청렴 강조하는데! 순간 화가 났지만 일주일간 고민한 기색이 역력한 후배 얼굴을 보니 차마 입 밖으로 화를 낼 수 없었다.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는데, 후배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냈다. 두툼한 흰 봉투였다.

임야를 보상할 때는 나무, 농작물의 지장물을 일일이 셀 수 없기 때문에 보통 평당 몇 식을 단위로 하여 면적에 적산하는 방법으로 보상한다. 민원인은 이 단위를 크게 해서 보상을 좀 더 받고 싶은 모양이었다.

후배는 민원인에게 절대 안 된다고 거절하고 바로 헤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낮에 민원인이 가지고 온 음료수 상자 밑에는 이 흰 봉투가 깔려 있었다.

그것도 한참 뒤에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흰 봉투를 보고 있자니 술기운 탓인지 문득 아내와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다. 외벌이라 아내에게 멋진 옷 한 벌 제대로 못해 줬고,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도 충분히 사 주지 못했다. 나도 모르게 저 돈이면 아내나 아이들에게 옷이라도 한 벌씩 사 줄 수 있겠지 싶었다. 나도

모르게 하루만 더 생각해 보자고 말하고 싶었다. 그때 후배가 말을 이었다.

“저도 처음에는 봉투를 보고 아프신 장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선배님 그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선배님! 제가 선배님에게 이런 말씀 드린 것은 도저히 이 민원인과 둘이 만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청렴하다고 믿고 의논할 수 있는 분은 선배님밖에 없습니다.”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선배님! 어머니의 새하얀 운동화! 저는 이 흰 봉투를 보자마자 어머니의 가르침이 생각났습니다. 그 새하얀 운동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게 삶의 지표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선배님이 제 청렴함의 지표예요.”

새하얀 운동화

우리 어머니는 늘 검소하고 정직한 분이셨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는 자식들을 기죽이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셨다. 부지런한 어머니 덕분에 우리 형제의 옷과 운동화는 낡았지만, 늘 깨끗했다. 당신은 변변한 옷 한 벌 해 입지 않으셨지만, 우리 형제들의 옷과 도시락에는 많은 신경을 쓰셨다. 그중에서도 어머니께서 가장 신경을 쓰신 것은 우리 형제의 운동화였다. 어머니는 깨끗한 운동화를 신어야 좋은 길, 소위 말하는 꽃길을 걷는다는 철학을 지닌 분이셨다.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이 운동화 신고, 이 운동화처럼 깨끗하고 좋은 길만 가도록 해라.”

어머니께서 늘 하얗게 닦은 신발을 신겨 주시면서 하시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생각났다.

“비싸다고 좋은 물건이 아니다. 물건을 아끼고 깨끗하게 써라. 내 몸에 맞으면 그게 명품이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도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닦는 일을 하니 늘 청렴하고 정직하게 말은 바 소임을 다하라고 하셨다.

청렴을 강조할 때마다 자랑 삼아 하던 새하얀 운동화 이야기. 내 가슴에 담아둔 이야기를 내가 잠시나마 잇다니!

어머니께서 평생을 가르쳐 주신 교훈을 송두리째 날려 버릴 뻔했다.

후배와 서둘러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왔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이 주말이었지만, 후배를 불러내서 상사에게 보고했다. 상사에게 민원인에게는 음

료수조차 받아서는 안 된다는 따끔한 꾸중을 들었다.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무실로 와줄 것을 요청했다. 민원인에게 법적 규정, 행정 절차를 비롯한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고, 음료수 상자 그대로 돌려주었다. 미리 돌려주지 못한 상황도 설명했다. 그리고 공직자는 흰 봉투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참을 말없이 우리 이야기를 들은 민원인은 부끄러움에 붉어진 얼굴을 하고 음료수 상자와 함께 사무실을 나섰다.

“제가 뭘가에 홀린 것 같습니다. 큰 결례를 범했네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공정하고 청렴하게 일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민원인은 배웅하러 나선 우리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며 어색한 웃음과 함께 사업단을 떠났다. 후배의 후련한 얼굴을 보며 청렴하고 정직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내 자신에게 부끄러운 행동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잠시나마 마음에 기쁜 부끄러움도 길고 긴 주말과 함께 멀리 날려 버렸다.

청탁금지법과 함께하는 청렴韓 세상

후배와 그 사건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했다. 이제는 까마득한 과거가 되었지만, 나와 후배에게는 평생 기억해야 할 교훈으로 남겨져 있다.

“요즘도 민원인들이 그렇게 찾아오나. 절대로, 고민조차하면 안 된다.”

후배가 사운 아이스크림 마지막 한 입을 베어 먹으며 노파심에 이야기했다.

“선배님, ‘김영란법’이 있잖아요. 민원인이 차 한 잔 대접하고 싶다고 해도, 뭘가를 부탁하려는 뉘앙스만 풍겨도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아무 말도 못 해요. 저 법이 우리 공직자를 지켜 주는 방패막이예요.”

후배는 ‘청렴韓 세상’ 포스터를 가리키며 녀석 좋게 웃었다.

처음에는 거절하기 어려워 차 한 잔, 밥 한 끼로 시작된다고 한다. ‘3. 5. 10’이라는 숫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온정주의를 떨쳐 버릴 수 있게 도와주는 방패막이다. ‘청탁금지법’이 법과 제도로써 우리의 양심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과 정직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폭염이 지나면 선선한 바람이 오듯이 우리 사회에도 청렴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란다.